

35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

• 미셸 푸코는 페네티콘(벤담이 설계한 원형모양의 감옥)이 만들어 내는 ‘감시받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현대에서는 독방이 아니라 사회 일반에도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이 압력이 인간의 개성, 또는 자유로운 사상과 행동을 억압하고 이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한 개인’을 광인으로서 집단에서 배제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 근대 국가는 법률이나 규칙 등 외부의 제도뿐만 아니라 훈련으로 형성된 도덕과 윤리로도 국민을 지배한다는 푸코의 주장이었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그것이 좋은 일이므로, 그것이 도덕이므로’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이유를 붙여 행동을 일으킨다고 느끼지만, 푸코는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지배 형태라고 경고한다.

• 이 지적을 경영의 세계에 적용하면 어떨까? 우선, 어떠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실제로 감시할 필요는 없다. 만약 방약무인한 행동을 일삼는 임원이 있다고 할 때 이 인물에게 행동을 고치도록 압력을 넣는 경우, 실제로 감시하기보다 ‘감시당하고 있다’고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감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시의 압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감시의 압력은 당연히 규범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재촉하게 되는데, 말할 필요도 없이 대다수의 사람이 이러한 규범을 따르고 있는 조직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 페네티콘이 만들어 내는 압력은 조직 내에 필연적으로 생기며 이를 억제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이 압력을 조직의 과제와 방향성에 맞는 형태로 조화롭게 길들여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